

# 최근의 실업자 증가 동향분석

황 덕 순\*

## I. 머리말

2010년 1월에 실업자는 2009년 1월에 비해 36만 8천 명(증가율 43.4%)이 늘어난 121만 6천 명(실업률 5.0%)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던 2000년 2월의 122만 3천 명 이후 최대치이다.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해 가고 있다고 얘기되던 시점에서 실업자수가 예상밖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사람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부가노동자 효과가 나타난 예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0년 1월의 실업자 급증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만하다.

2010년 1월의 실업자 급증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2009년에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이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종료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했다는 것이다. 2010년 1월의 실업자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실업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의 실직자가 큰 규모로 증가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2009년에 24만 4천여 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실업자로 진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업자의 급증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만으로 실업자의 급증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1) 희망근로는 정부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참여자는 산업분류상으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의 취업자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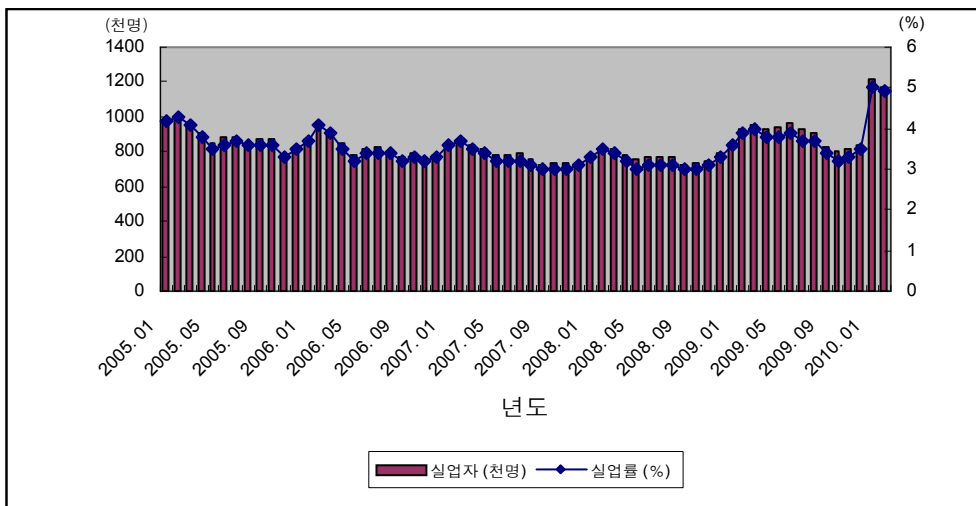
2010년 2월에도 실업자수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24만 4천 명(증가율 26.4%)이 늘어난 116만 9천 명으로 1월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역시 크게 늘었다. 2월의 수치도 2001년 2월의 118만 2천 명 이후 최대치이다. 그런데 2월의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 실업자가 지난 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10.0%로서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증가 규모는 9만 8천 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기는 하지만 1월의 17만 9천 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최근 두 달간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정책이 실업자의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외의 다른 요인도 실업자의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희망근로사업이 최근의 실업을 변화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실업자의 내부구성 변화 및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동향을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업자의 급증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 II. 최근의 실업 추이

2010년 1월과 2월의 실업자 급증이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실업자수와 실업률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1]은 2005년 1월 이후의

[그림 1]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2005.1~2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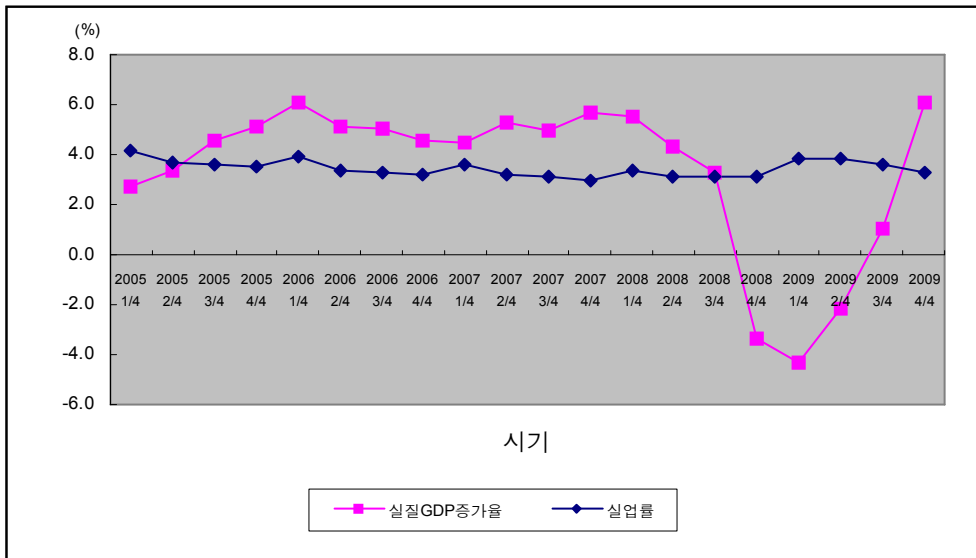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월별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보여준다.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수식이 따라 붙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에 휩쓸린 2009년을 제외하면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계절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반영해 왔다. 따라서 2005~08년도에는 각년도에서 2월에 가장 많은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기록했다.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연중에 연초보다 실업자가 더 많았지만, 위기의 정도를 고려하면 실업자수와 실업률의 변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이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지금까지 관찰되어온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2]는 2005년 이후 분기별 실질GDP증가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실직자의 상당수가 실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2) 과거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 올해 초의 실업 동향은 확실히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우선 계절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실업자수의 증가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서 1월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43.4%, 2월에는 26.4% 늘어났다. 특히 예년과 달리 1월이 2월보다 실업자수도 많고 실업률도 더 높다. 두 번째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그림 2] 실질GDP증가율과 실업률(2005. 1/4분기 ~ 2009. 4/4분기)



주: 실질GDP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 경기변동과 실업률이 괴리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은 참고, 「경제위기가 노동이동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2009년 5월호(통권 제53호) 참조.

큰 폭으로 실업자수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가노동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 1]과 [그림 2]가 보여주듯이 경기회복기에 이렇게 큰 폭으로 실업자수가 늘어난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또 다른 설명이 대규모로 시행되던 희망근로사업이 겨울철에 중단되면서 이들이 실업자로 진입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단기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업참여자들은 대부분 희망근로사업 참여 이전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고, 사업종료 후에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상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 다수의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2009년 11월 다음 달인 12월의 실업자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이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어느 하나만으로는 최근의 실업동향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III. 2010년 초 실업자 내부구성 및 동향 분석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업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월에 몇 가지 지표에서 다른 시기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여성실업자와 60대 이상 실업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1년 이내 전직실업자 가운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를 이유로 실직한 경우, 전직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인 경우, 전직 산업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인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한편 2010년 2월에는 위와 같은 특징이 여전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1월에 비해 그 정도는 크게 약해진다. 따라서 1월과 2월의 실업자 내부구성 및 실업자 증가 원인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표 1>과 <표 4>는 2010년 1월과 2월의 실업자 내부구성을 지난 해 같은 시기와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해 같은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계절의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우선 실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월을 보자. 내부구성 변화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항목은 1년 이내에 이직한 실업자 가운데 전직 산업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인 집단이다. 2009년 1월에 이들은 1만 3천 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월에는 17만 7천 명으로 16만 4천 명이 늘어나 증가율 1,261.5%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전체 실업자수 증가분인 36만 8천 명의 44.6%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부문에서 늘어난 실업자의 대부분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1> 2009년 1월 → 2010년 1월 실업자 내부구성의 변화

(단위: 천 명, %)

		2009.1	2010.1	증감수	증가율	전체 증감수 대비 비중	
전 체		848	1,216	368	43.4	-	
성별	남자	567	721	154	27.2	41.8	
	여자	281	495	214	76.2	58.2	
연령	20대 이하	356	411	55	15.4	14.9	
	30대	213	232	19	8.9	5.2	
	40대	144	188	44	30.6	12.0	
	50대	101	172	71	70.3	19.3	
	60대 이상	34	213	179	526.5	48.6	
전직여부	1년 이내 전직	662	916	254	38.4	69.0	
	1년 이전 전직	142	230	88	62.0	23.9	
	전직장 경험 없음	44	70	26	59.1	7.1	
1년 이내 전직자	지위	상용직	172	203	31	18.0	8.4
		임시직	217	452	235	108.3	63.9
		일용직	216	198	-18	-8.3	-4.9
	이직 사유	개인, 가족 관련	128	150	22	17.2	6.0
		작업여건 불만족	172	222	50	29.1	13.6
		직장의 휴폐업	59	37	-22	-37.3	-6.0
		명퇴, 조퇴, 해고	69	79	10	14.5	2.7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91	271	180	197.8	48.9
	일거리 없음, 경영악화	134	118	-16	-11.9	-4.3	
	전직 산업	광공업	123	120	-3	-2.4	-0.8
		건설업	128	110	-18	-14.1	-4.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4	184	0	0.0	0
		사업서비스업	111	160	49	44.1	13.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3	177	164	1,261.5	44.6
		교육보건사회복지	52	90	38	73.1	10.3
		예술스포츠개인서비스	44	54	10	22.7	2.7
	전직 시점	조사월	39	35	-4	-10.3	-1.1
		조사전월	186	314	128	68.8	34.8
조사 2개월 전		122	188	66	54.1	17.9	
조사 3개월 전		80	95	15	18.8	4.1	
조사 4~6개월 전		168	160	-8	-4.8	-2.2	
조사 7개월 이상 전		68	123	55	80.9	14.9	
구직활동기간	1개월	317	690	373	117.7	101.4	
	2개월	210	195	-15	-7.1	-4.1	
	3개월	102	150	48	47.1	13.0	
	4~5개월	135	113	-22	-16.3	-6.0	
	6~11개월	80	62	-18	-22.5	-4.9	
	12개월 이상	3	6	3	100.0	0.8	

주: 전직 종사상 지위와 이직사유, 전직 산업은 중요한 것만 제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2009년 1월 전직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 실업자의 내부구성

(단위: 천 명, %)

		2009년 12월 이직자	2009년 11월 이직자	전 체
전 체		86(100.0)	60(100.0)	146(100.0)
성별	남자	36( 41.6)	25( 41.9)	61( 41.8)
	여자	50( 58.4)	35( 58.1)	85( 58.2)
연령	20대 이하	11( 12.9)	1( 2.2)	12( 8.2)
	30대	3( 3.8)	5( 8.3)	8( 5.5)
	40대	9( 10.9)	6( 10.6)	16( 11.0)
	50대	20( 23.1)	12( 20.7)	32( 21.9)
	60대 이상	42( 49.4)	35( 58.3)	77( 52.7)
이직 사유	육아	1( 0.7)	0( 0)	1( 0.7)
	정년퇴직, 연로	1( 1.0)	0( 0)	1( 0.7)
	명퇴, 조퇴, 정리해고	3( 3.4)	1( 1.8)	4( 2.7)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79( 91.4)	56( 93.5)	134( 91.8)
	기타	3( 3.5)	3( 4.7)	6( 4.1)
전직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1.2)	0( 0)	1( 0.7)
	임시직	84( 97.1)	59( 99.4)	143( 97.9)
	일용직	2( 1.8)	0( 0.6)	2(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편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의 실직은 다른 항목에 반영된 실업자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여자 및 60대 이상 고령자, 전직 이전에 임시직이었던 실직자, 조사 1~2개월 전 실직자,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에 따른 실직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2>는 2010년 1월 실업자 가운데 희망근로가 종료된 2009년 11월과 12월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 이직한 집단의 내부 구성을 보여준다.

우선 희망근로가 종료된 11월과 12월에 이직한 실업자는 14만 6천 명으로 2010년 1월에 지난 해에 비해 이 산업에서 늘어난 실업자 16만 4천 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이직사유와 전직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직인 경우가 97.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직 사유도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인 경우가 91.8%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대부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52.7%로 과반수를 넘고, 성별로는 여자가 58.2%로서 남자보다 더 많다. 이와 같이 2010년 1월에 실업자로 조사된 희망근로 참여자의 특징이 연령이나 성별, 이직사유,

전직 종사상 지위 및 전직 시점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많은 부분 설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종료만으로 실업자의 급증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표 2>에서 2009년 11월과 12월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에서 이직한 실업자를 모두 희망근로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14만 6천 명으로 <표 1>의 총실업자 증가 규모인 36만 8천 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의 영향을 제외한 실업자 증가 규모 22만 4천 명도 예년의 실업자 변화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표 3>은 2006~09년 기간 동안 각년도 1월과 2월 시점의 전년동기대비 실업자수 변화 규모를 보여준다. 각년도의 변화 규모는 평균적으로 1월에 7만 명, 2월에 6만 9천 명이고, 가장 규모가 클 때도 2006년의 11만 1천 명(1월)과 2009년의 10만 5천 명(2월)이다.

<표 3> 각년도 1월과 2월의 지난 해 같은 시기 대비 실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6	2007	2008	2009	변화규모 평균
1월	-111	-18	-77	74	70
2월	-36	-92	-42	105	69

주: 변화규모 평균은 각년도 변화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0년 2월에는 희망근로사업의 종료에 따른 영향이 1월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의 1년 이내 전직 실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8만 명으로 1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부문으로부터의 실업자수 증가가 2010년 2월의 지난 해 같은 시기 대비 전체 실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60대 이상 고령자, 1년 이내 전직자, 전직 임시직 근로자, 조사 2개월 전 이직자 등이 실업자의 전체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다. 또한 희망근로 참여자로 볼 수 있는 2009년 11월과 12월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의 전직 실업자 집단은 6만 4천 명으로서 이를 제외한 실업자 증가 규모는 18만 1천 명에 이른다. 이는 1월의 22만 4천 명에 비해서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연간 변화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실업자 증가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올해의 희망근로사업(시행기간, 2010.3.2~2010.6.30)이 이미 10만 명 규모로 시작되었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대다수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0년 1월에 희망근로사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이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은

<표 4> 2009년 2월 → 2010년 2월 실업자 내부구성의 변화

(단위: 천 명, %)

		2009.2	2010.2	증감수	증가율	전체 증감수 대비 비중	
전 체		924	1,169	245	26.5	-	
성별	남자	608	709	101	16.6	41.2	
	여자	316	459	143	45.3	58.4	
연령	20대 이하	372	433	61	16.4	24.9	
	30대	229	242	13	5.7	5.3	
	40대	163	198	35	21.5	14.3	
	50대	113	151	38	33.6	15.5	
	60대 이상	47	145	98	208.5	40.0	
전직여부	1년 이내 전직	693	831	138	19.9	56.3	
	1년 이전 전직	181	278	97	53.6	39.6	
	전직장 경험 없음	50	60	10	20.0	4.1	
1년 이내 전직자	지위	상용직	175	194	19	10.9	7.8
		임시직	244	358	114	46.7	46.5
		일용직	224	211	-13	-5.8	-5.3
	이직 사유	개인, 가족 관련	122	141	19	15.6	7.8
		작업여건 불만족	171	226	55	32.2	22.4
		직장의 휴폐업	66	37	-29	-43.9	-11.8
		명퇴, 조퇴, 해고	81	61	-20	-24.7	-8.2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92	206	114	123.9	46.5
	전직 산업	일거리 없음, 경영악화	146	126	-20	-13.7	-8.2
		광공업	125	118	-7	-5.6	-2.9
건설업		146	123	-23	-15.8	-9.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5	178	3	1.7	1.2	
사업서비스업		120	150	30	25.0	12.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5	95	80	533.3	32.7	
교육보건사회복지		56	102	46	82.1	18.8	
전직 시점	예술스포츠개인서비스	47	51	4	8.5	1.6	
	조사월	47	60	13	27.7	5.3	
	조사전월	162	166	4	2.5	1.6	
	조사 2개월 전	150	224	74	49.3	30.2	
	조사 3개월 전	96	102	6	6.3	2.4	
	조사 4~6개월 전	154	174	20	13.0	8.2	
구직활동기간	조사 7개월 이상 전	83	105	22	26.5	9.0	
	1개월	409	559	150	36.7	61.2	
	2개월	177	292	115	65.0	46.9	
	3개월	122	110	-12	-9.8	-4.9	
	4~5개월	128	141	13	10.2	5.3	
	6~11개월	84	63	-21	-25.0	-8.6	
	12개월 이상	4	4	0	0.0	0	

주: 전직 종사상 지위와 이직사유, 전직 산업은 중요한 것만 제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 2009년 11월 및 12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 실직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 명)

		2009년 11월 이직자	2009년 12월 이직자	실업 계	비경제활동 계
2009년 12월 경제활동상태	실업	23	-	23	-
	비경제활동	112	-	-	112
2010년 1월 경제활동상태	실업	60	86	146	-
	비경제활동	64	85	-	149
201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실업	20	44	64	-
	비경제활동	87	106	-	193

주: 다른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각월 이직자 가운데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있는 경우를 합한 미취업자수는 줄어들게 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9년 11월과 12월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 미취업상태로 이행한 이직자의 이후 경제활동상태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표 5>에 따르면 2009년 11월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으로부터 실직해서 미취업상태로 이행한 집단의 대다수는 실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시적으로 2010년 1월에 실업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비경제활동상태로 돌아간다. 또한 2009년 12월 이직자의 경우에도 1월에는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으로 이동한 집단이 더 크지만 2월에는 실업에 남아 있는 집단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1월에 실업자로 조사된 집단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1월 13일~1월 22일 기간 중에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의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 6월 말 이후 종료되더라도 하반기에 유사한 사업을 새로 시행하지 않는 한 그 영향이 실업률에 반영되는 정도는 올해 초와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근로사업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 1월과 2월에 실업자가 평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부가노동자 효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을 지금까지의 분석만으로는 밝히기 어렵다. 다만, 단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년 이전에 전직해서 장기간 동안 미취업상태에 있던 집단 가운데 새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자로 진입한 집단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집단의 증가율은 2010년 1월에 62.0%, 2월에 53.6%로서 희망근로의 영향이 반영된 1년 이내 전직실업자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희망근로의 영향을 제외하면 1년 이내 전직실업자와 1년 이상 전직실업자의 증가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집단의 절대적인 규모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집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2010년 1월의 경우 구직활동이 1개월인 집단, 2월의 경우 1개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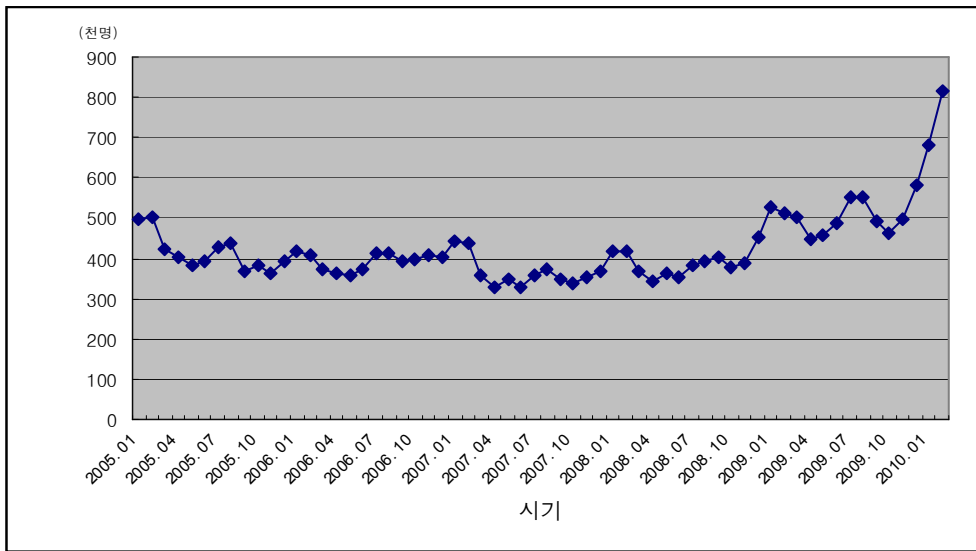
개월인 집단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집단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 역시 희망근로의 영향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두 사실을 종합해 보면 2010년 1월 이후에 그 동안 노동시장 밖에 있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희망근로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60대 이상 이외의 연령집단 가운데 30대를 제외하면 모든 집단에서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남자실업자의 증가 규모도 매우 크다. 이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특정 집단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또 다른 현상이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매년 초에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그 증가폭이 예년의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그림 3).

이들의 내부구성을 보여주는 <표 6>에 의하면 2010년 2월의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 7천 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0만 4천 명(증가율 59.3%)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전 전직자 집단의 증가율이 1년 이내 전직자 집단의 증가율을 뛰어넘는다. <표 6>에서도 전직 산업이나 전직 종사상 지위, 전직 시점 등에서 희망근로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체 증가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림 3]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6> 2009.2 → 2010.2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의 내부구성 변화

(단위: 천 명, %)

		2009.2	2010.2	증감수	증가율	전체 증감수 대비 비중	
전 체		513	817	304	59.3	-	
성별	남자	288	408	120	41.7	39.5	
	여자	225	409	184	81.8	60.5	
연령	20대 이하	117	134	17	14.5	5.6	
	30대	95	144	49	51.6	16.1	
	40대	111	168	57	51.4	18.8	
	50대	101	161	60	59.4	19.7	
	60대 이상	89	210	121	136.0	39.8	
전직여부	1년 이내 전직	306	464	158	51.6	52.0	
	1년 이전 전직	184	325	141	76.6	46.4	
	전직장 경험 없음	23	28	5	21.7	1.6	
1년 이내 전직자	지위	상용직	37	43	6	16.2	2.0
		임시직	90	178	88	97.8	28.9
		일용직	152	200	48	31.6	15.8
	이직 사유	개인, 가족 관련	42	63	21	50.0	6.9
		작업여건 불만족	50	50	0	0.0	0.0
		직장의 휴폐업	13	9	-4	-30.8	-1.3
		명퇴, 조퇴, 해고	28	23	-5	-17.9	-1.6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71	172	101	142.3	33.2
		일거리 없음, 경영악화	95	127	32	33.7	10.5
	전직 산업	광공업	39	34	-5	-12.8	-1.6
		건설업	76	108	32	42.1	10.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4	78	14	21.9	4.6
		사업서비스업	51	59	8	15.7	2.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20	90	70	350	23.0
		교육보건사회복지	23	33	10	43.5	3.3
		예술스포츠개인서비스	20	36	16	80	5.3
	전직 시점	조사월	11	32	21	190.9	6.9
		조사전월	67	71	4	6.0	1.3
조사 2개월 전		62	127	65	104.8	21.4	
조사 3개월 전		45	86	41	91.1	13.5	
조사 4~6개월 전		62	72	10	16.1	3.3	
조사 7개월 이상 이전		58	77	19	32.8	6.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업자와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규모를 모두 합하면 희망근로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초에 취업희망자의 규모가 지난 해에 비해 4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실업자 내부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 실업자가 급증한 이유를 살펴 보았다. 이로부터 2009년에 대규모로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이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종료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신청시기인 1월에 실업자로 조사된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희망근로만으로는 전체 실업자의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고 계절적인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 부가노동자 효과가 더 크게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0년 3월 이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증가하여 취업자수도 증가하지만 실업자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자수가 빠르게 적어지거나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는 올해 들어 비경제활동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거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면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이 크게 늘어난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이나 다른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등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결합한 분석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LI**